

보도설명자료 (‘20. 9. 2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금년도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결과 신청건수 기준으로
중소·중견 제품 비중이 상당하고,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
중소 협력사들도 간접적으로 수혜(9.21일 아시아경제)

- ◇ 금년 사업 결과 신청금액 기준으로 중소·중견 제품 비중이 21.2%인 것은 사실이나,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38.1%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,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도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아,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
- ◇ 9.21일 아시아경제(인터넷판) 등 <“3000억 규모 으뜸효율가전 환급액 78.8%는 대기업 제품”>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에 대기업 제품 쏠림 현상이 심각
- 올해 환급사업을 통해 신청된 제품 중 대기업 제품이 환급액의 78.8%를 차지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금년도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 추진 결과 신청금액 기준으로 중소·중견 제품 비중이 21.2%인 것은 사실이나,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38.1%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
- * '20.3.23~8.20일 간 환급 신청 기준

- 신청건수 기준으로 환급 대상 11개 품목* 중 5개 품목(전기밥솥, 제습기, 김치냉장고, 공기청정기, 에어컨)에서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비중이 높았으며, 전기밥솥의 경우 중소·중견기업 제품이 100% 차지

* 품목별 중소·중견기업 제품 비중(%), 신청 건수 기준) : 전기밥솥(100), 제습기(67.1), 김치냉장고(61.8), 공기청정기(64.4), 에어컨(59.9), 냉온수기(36.4) 등

- 또한, 대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 협력사들도 간접적으로 수혜

- 대기업 주도 4개 대형가전(냉장고, 세탁기, 에어컨, TV)의 출하가격 중 중소기업 조달 부품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약 60%를 차지
- 특히, 수량 기준으로 보면 4개 대형가전의 전체 부품수 대비 중소기업 협력사 조달 부품수 비중이 80% 이상

* '20년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주요 가전사를 대상으로 조사(4개 품목별 판매 상위 대표모델 기준)

- 따라서 금년도 으뜸효율가전 환급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효과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됨

※ 문의: 유성우 에너지효율과장(044-203-5140) / 김진상 사무관(5146)